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보도자료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2. 10. 26(금)

담당자 세계경제연구원

연락처 02-551-3334

igenet@igenet.com

Nicolas Veron 박사 초청 특별강연회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제목 : 10월 29일(월) 07:00-09:00 롯데호텔 가네트룸(37층)

-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 일)은 10월 29일(월)에 유럽 브뤼셀연구소(브뤼셀 소재)의 Nicolas Veron 수석연구원을 초청하여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이라는 제하의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
- ※ 유럽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인 베론 박사는 일찍부터 유로존 위기 해결책으로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창설을 주장해온 바 있으며 2012년 블룸버그가 선정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 1인임
- Veron 박사는 불완전한 정책체제와 함께 도입된 유럽의 단일통화와 자만이 금융권의 기능상실, 국가부채 증가, 경제의 순환 장애, 정책마비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유럽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연합(Banking Union), 재정연합(Fiscal Union), 경제연합(Economic Union), 정치연합(Political Union)이 설립되어야함을 강조할 예정
- 불완전한 정책체제와 함께 도입된 단일통화와 더불어 프랑스와 독일의 EU안정성장협약의 위반, 남·북유럽 간 경쟁력 격차, 무분별한 신용확대, 은행의 차입확대, 금융민족주의를 유럽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평가
- 동 문제 해결에는 궁극적으로 은행연합, 재정연합, 경제연합, 정치연합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과제를 제시

- 금융정책통합을 위해 일찍부터 요구되어온 은행연합은 2013년 1월까지 단일 감독체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
 - 재정연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경쟁력 강화 정책 실시, 혁신 제고 등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유럽 간 격차를 축소할 것을 강조
 - 정치·제도적 측면에서의 핵심 과제는 명확한 대표성과 책임소재의 분별 임을 지적하고 회원국들 간의 다양성과 정치적 가변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것을 권고
- 한국무역협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동 강연에는 정책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무역업계 등 각 분야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